

Kstat Report

87호 || 2023년 11월 23일

‘불안사회’ 해결방향성 모색

■ ‘불안사회’에 대한 평가

- _ ‘불안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 ‘개인적 활로’ 모색
- _ 불안한 문제들 일어나는 방향, ‘사회’ 소폭 우세
- _ 사회적 가치관, 살아가는데 도움되는지 ‘유보적’
- _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견 말하는 사람, ‘없다’
- _ 내 개인의 삶,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인식

- _ 국민들, ‘공공’에 대한 신뢰도 낮아
- _ 지역, 소득, 이념 모두 ‘중앙정부’ 신뢰도 낮아
- _ 공공에 대한 낮은 신뢰, ‘나와의 괴리감’ 때문

■ 중앙정부·지자체 불안요인 대응 방향성

- _ ‘경제’와 ‘건강’ 중앙정부, ‘주거’는 기초지자체
- _ ‘경제’, 거의 모든 계층에서 ‘중앙정부’ 역할 꼽아
- _ ‘불안’ 해결 기대감, 전반적으로 낮아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1월 3일(금) ~ 11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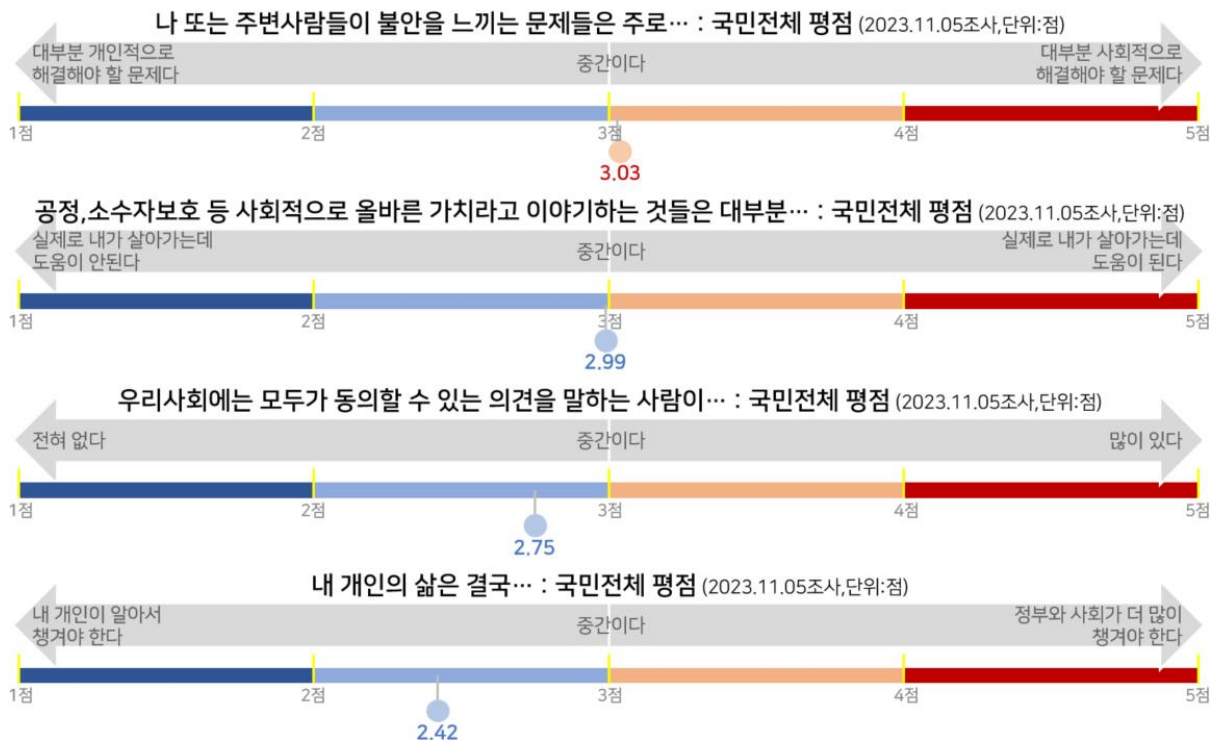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불안사회'에 대한 평가

□ '불안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 '개인적 활로' 모색

- 국민들은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이, 개인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 혼동스러워하고 있음(3.03점)
 - “다음은 불안과 관련된 주장들입니다. 각 주장에 대한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은 주로...” 라는 질문 후 ‘중간이다’ 3점을 기준으로 ‘대부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생각할 수록 1점을 선택하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생각할수록 5점을 선택토록 한 결과임
-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관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유보적임(2.99점)
- 또한 우리사회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면서(2.75점), 결국 자신의 삶은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음(2.4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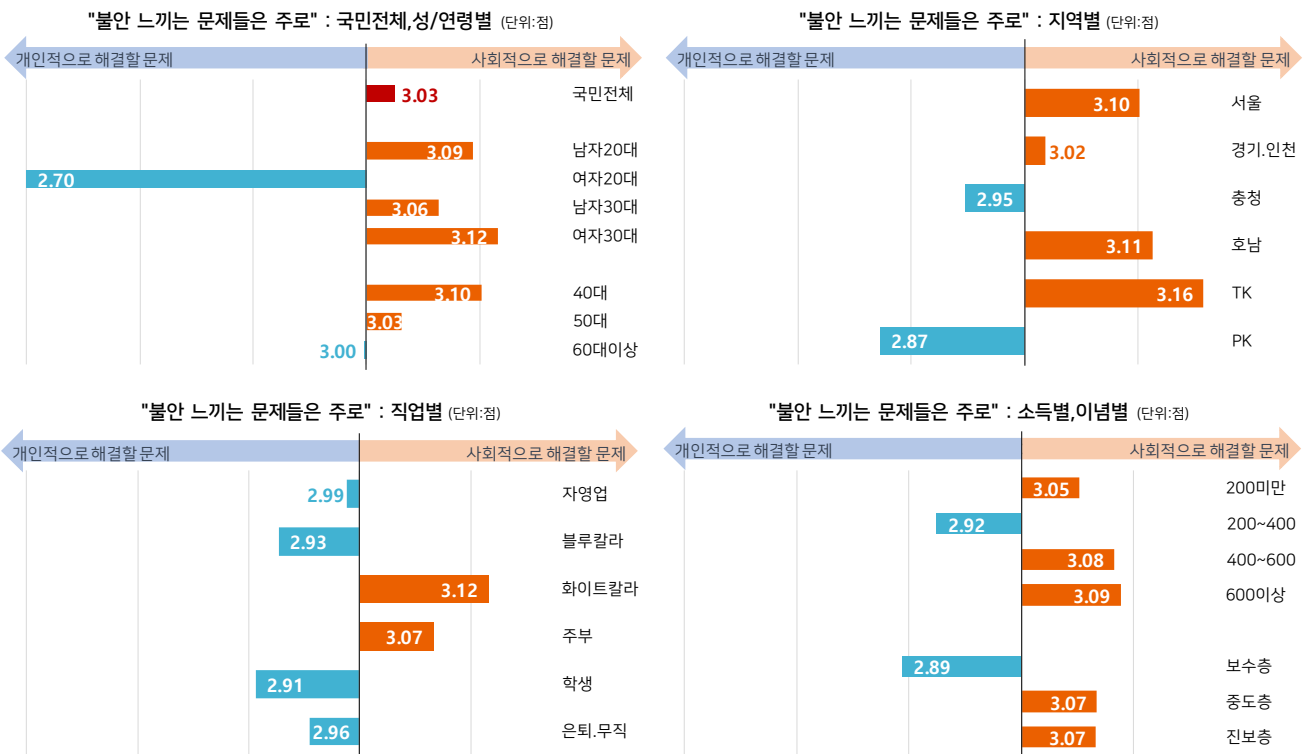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이 개인적 문제인지 사회적 문제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나타냄
 - : 즉, 불안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불확실성’과 ‘가치관 위기’가 한국사회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불안사회’ 관련 라터만의 분석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86호 : 국민 ‘불안의식’ 진단과 분석』 참고
- ☑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개인주의’를 선택하는 모습임
 - : 각자 알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른바 ‘각자도생’ 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분석됨

□ 불안한 문제들 일어나는 방향, '사회' 소폭 우세

- 우리 국민들은 자신 또는 주변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이, 개인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 혼동스러워하고 있음(3.03점)
 - “다음은 불안과 관련된 주장들입니다. 각 주장에 대한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 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문제들은 주로...” 라는 질문 후 ‘중간이다’ 3점을 기준으로 ‘대부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1점을 선택하고, ‘대부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5점을 선택토록 한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TK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이다’ 3점 기준선임
- 이에 비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응답이 많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대 △PK △학생 △200~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보수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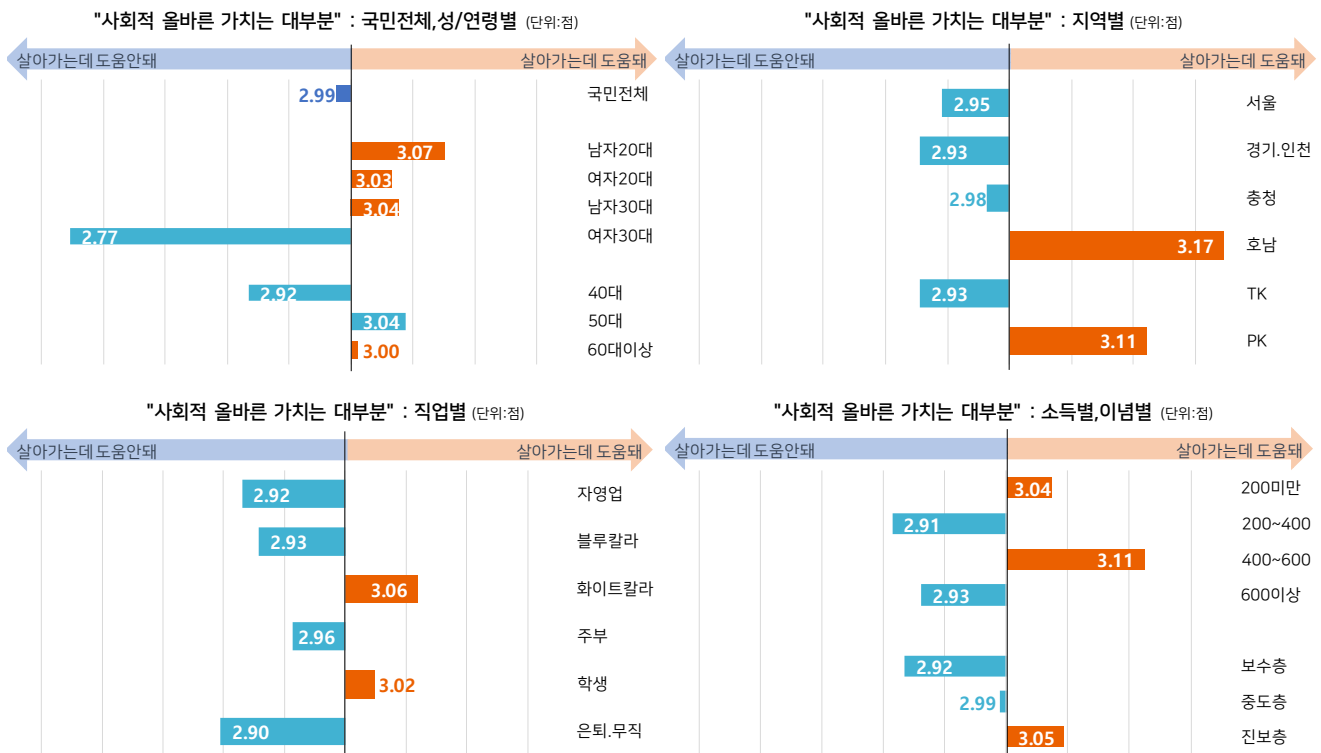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가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는 대부분 그 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 등에 긴밀히 연계돼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가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안정성이 판가름 남
- ☑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방향이 사회적인지, 개인적인지,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양상임 : 전반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라는 계층이 많지만, 개인적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계층도 많음 : 특히 여자 20대의 경우 2.70점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개인적 문제라는 생각이 강함 : 이는 우리사회가 '개인의 노력과 경쟁'을 중시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국가·사회가 지원하는 체계가 불충분한(사회안전망 미비)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사회적 가치관, 살아가는데 도움되는지 '유보적'

-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관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유보적임(2.99점)
 - “다음은 불안과 관련된 주장들입니다. 각 주장에 대한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 **공정,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라는 질문 후 ‘중간이다’ 3점을 기준으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록 1점을 선택하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5점을 선택토록 한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TK △은퇴.무직 △200~400만원 미만 소득층 △보수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이다’ 3점 기준선임
- 이에 비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대 △호남 △화이트칼라 △400~600만원 미만 소득층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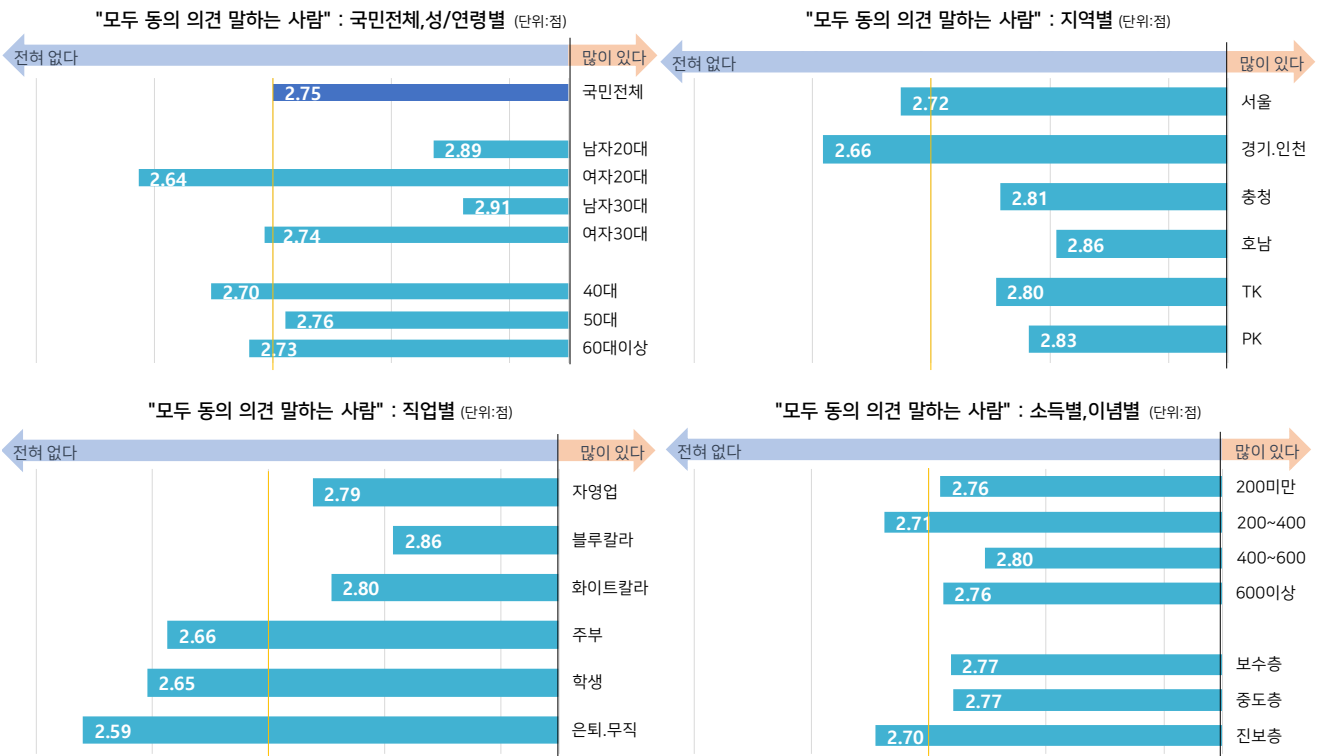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들이 실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태도가 소폭 우세함
- ☑ 국가·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에 대해 이렇듯 현실적 동의를 낮을 경우 ‘국민통합’보다 ‘국민분열’이 강하게 작동할 수 밖에 없고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강화된다는 지적임
 - :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을 두고 ‘옹호’와 ‘조롱’이 격렬히 충돌하는 미국 사회도 국민분열이 매우 심각하고 개인의 불안감은 극대화되고 있음
- ☑ 국민들 역시 우리사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통합을 위한 ‘올바른 가치’ 정립이 시급한 과제임
 - : 우리사회 ‘분열됐다’는 여론은 항상 70% 이상을 유지함(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사회지표] 보고서 참고)

□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견 말하는 사람, '없다'

- 국민들은 우리사회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함(2.75점)
 - "다음은 불안과 관련된 주장들입니다. 각 주장에 대한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 **우리사회에는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라는 질문 후 '중간이다' 3점을 기준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할수록 1점을 선택하고, '많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5점을 선택토록 한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없는 편'에 해당하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대 △경기.인천 △은퇴.무직자 △200~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진보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이다' 3점 기준선이고,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2.75점) 기준선임
-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호남 △블루칼라 △4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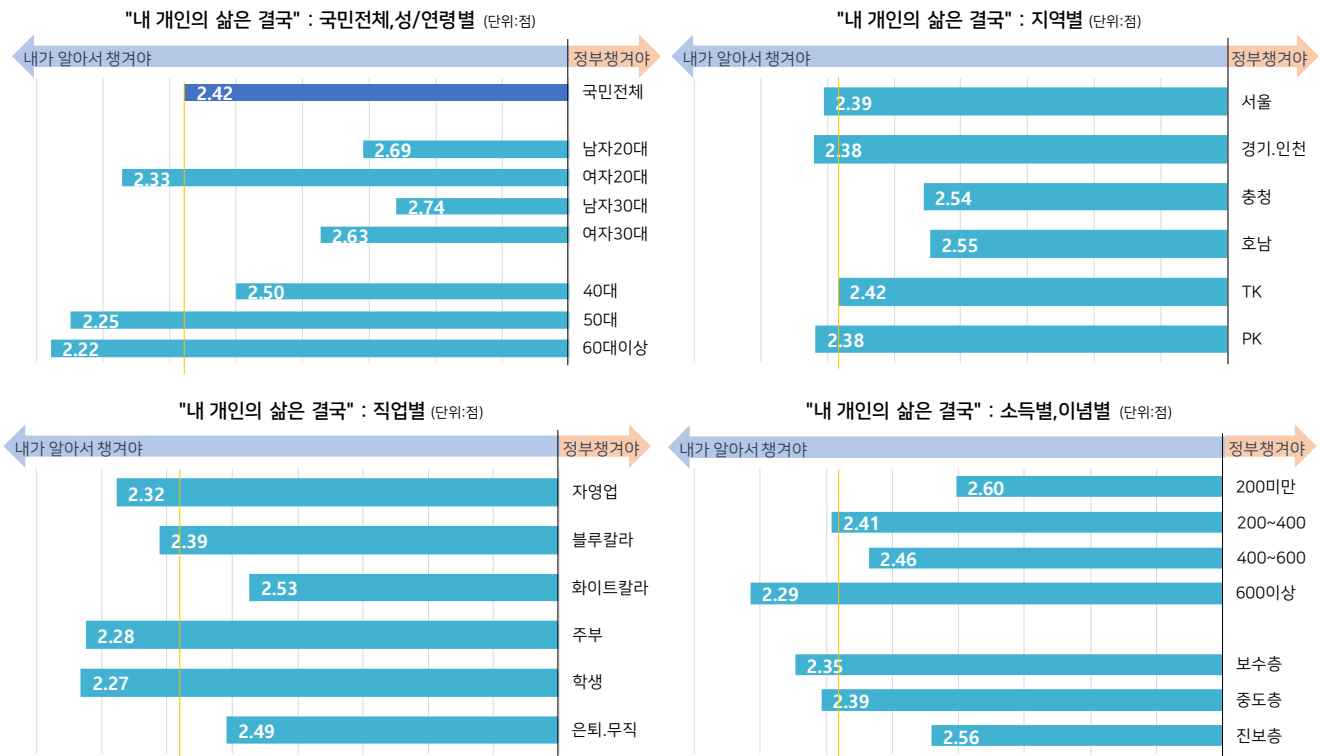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우리사회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함
 - :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라는 국민적 권위는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 학자, 기업인, 시민단체 지도자 등 각 계에 존재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국민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함
- ☑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사회적 가치'가 부재하고, 국민적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다는 국민여론을 직시할 때, 당분간 우리사회는 통합보다 분열된 사회를 유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임
 - : 그리고 불확실한 사회에 살아가는 개개인은 '가치관 위기'에 처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내 개인의 삶,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

- 국민들은 자신의 삶은 결국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음(2.42점)
 - "다음은 불안과 관련된 주장들입니다. 각 주장에 대한 의견 중에서,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 내 개인의 삶은 결국..." 라는 질문 후 '중간이다' 3점을 기준으로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1점을 선택하고, '정부와 사회가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5점을 선택토록 한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우세한 계층은 △5060세대 △주부, 학생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보수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중간이다' 3점 기준선이고, 노란 세로 선은 국민전체 평점(2.42점) 기준선임
-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은 △남자 30대 △충청, 호남 △화이트칼라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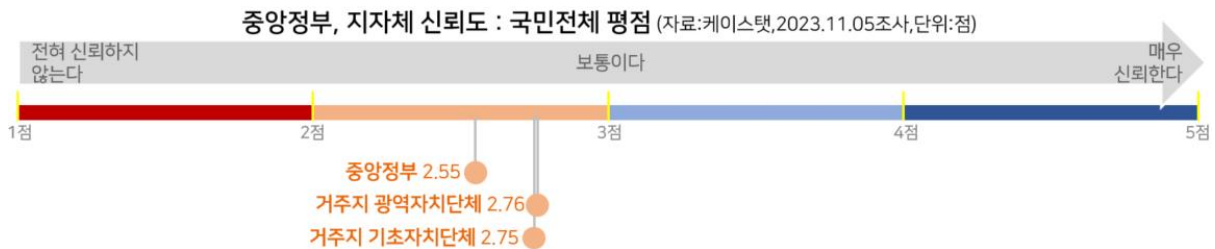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대국가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수준임
- ☑ 국가 간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핵심 기준인 GDP 대비 공공 복지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 2022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4.8%로 OECD 38개국 중 34위임(자료, OECD)
 - : 이는 OECD 평균(21.1%)보다 낮은 것은 물론 가장 높은 국가인 프랑스(31.6%)에 비하면 2배에도 미치지 못함
- ☑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낮은 복지수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은 '내 개인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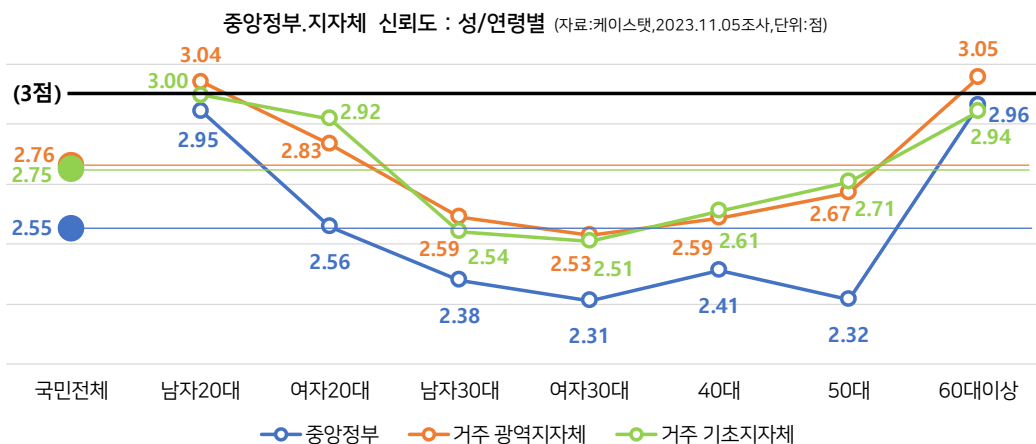
중양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인식

국민들, '공공'에 대한 신뢰도 낮아

- 국민들에게 중양정부를 비롯해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등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한 결과 모두 '보통이다'(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은 평소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중양정부', '내가 사는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가 사는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응답 받음
 - 이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신뢰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함
- '중양정부'가 2.55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2.75점), '거주지 광역자치단체'(2.76점) 순으로 나타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자 20대와 60대이상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수준을 기록했으나, 그외 연령은 모두 3점에 미치지 못함
 - 여자 20대는 중양정부 및 지자체 모두 국민 전체 이상의 평점을 보였으나, 그외 연령층은 국민 전체보다 낮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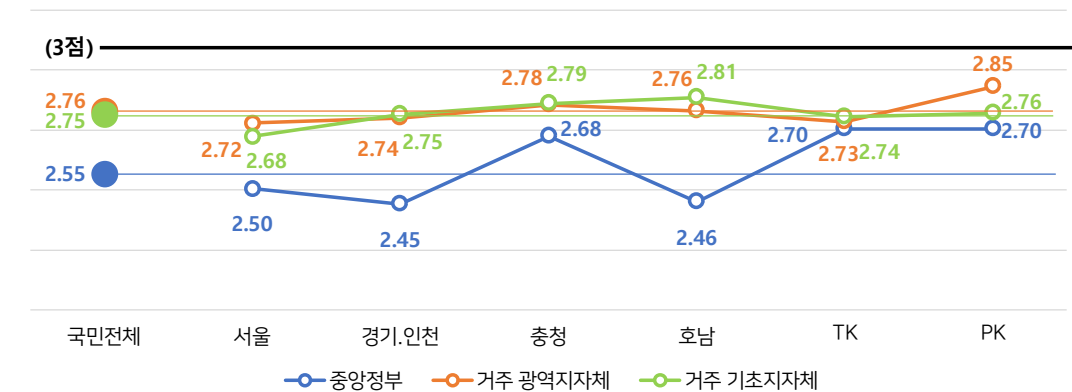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대국가들은 개인(즉, 국민)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OECD는 총 11가지 영역, 24개 요소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제안함(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 지표)
- ☑ 그러나 앞서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OECD 꼴찌 수준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의 역할이 부족함
- ☑ 국민들이 '내 삶은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생각하는 상황에서 중양정부 등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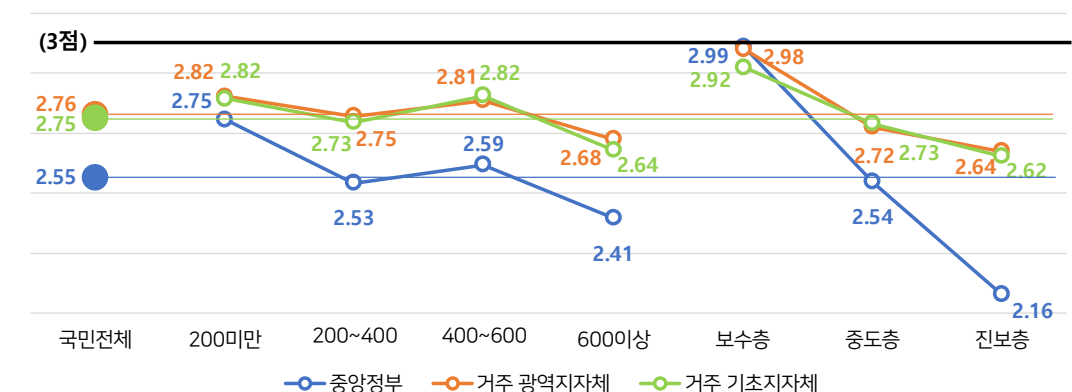
□ 지역, 소득, 이념 모두 '중앙정부' 신뢰도 낮아

- 공공 신뢰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신뢰도가 가장 낮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비슷한 점수를 기록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신뢰도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청, TK, PK 등임
 - 경기.인천과 호남은 중앙정부 점수는 낮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대한 점수는 국민전체와 비슷한 수준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가로선은 '보통'(3점) 기준선임
- 소득별로도 중앙정부 신뢰도 점수가 가장 낮은 가운데,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이념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중앙정부 등 공공 모두에 대해 3점(보통) 수준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진보층은 낮은 점수를 기록함

중앙정부.지자체 신뢰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점)



중앙정부.지자체 신뢰도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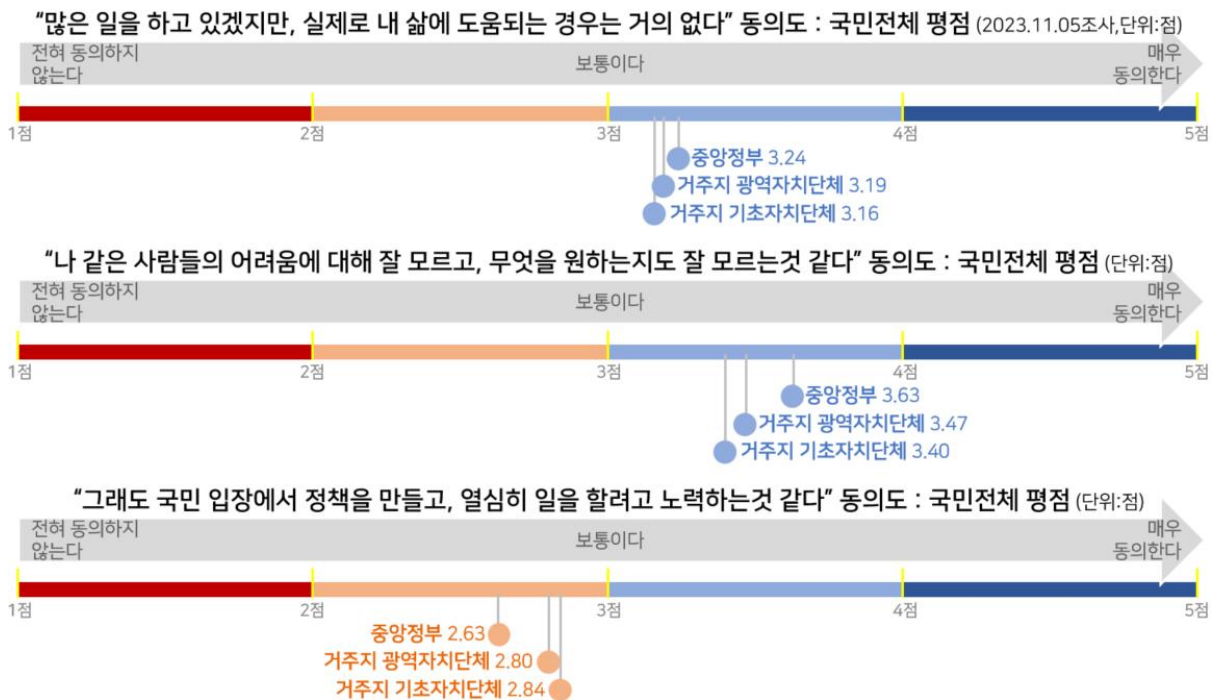


Kstat Point

- ☑ 모든 계층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그보다 높은 신뢰도를 기록함
- ☑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낮은 국정수행 평가율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임
-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신뢰도가 중앙정부보다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평가에서 자유롭기 때문임

□ 공공에 대한 낮은 신뢰, '나와의 괴리감' 때문

- 중앙정부를 비롯해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나와의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많은 일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내 삶에 도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보통'(3점)보다 높은 동의도로 부정적 태도를 나타냄
 - 1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이고,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동의한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다음으로 “나 같은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통'(3점) 이상의 부정적 태도를 포함
- 또한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할려고 노력하는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역시 '보통'(3점)보다 낮은 점수로 부정적 태도로 드러냄
- 모든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장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고, 다음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순임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해결 또는 완화해야 할 공공은 내 삶에 도움이 안되고, 내 어려움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
 - : 계층별로도 이러한 생각이 동일해, 국민전체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분석됨
- ☑ 핵심은 공공과 '나와의 괴리감'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임
 - : 중앙정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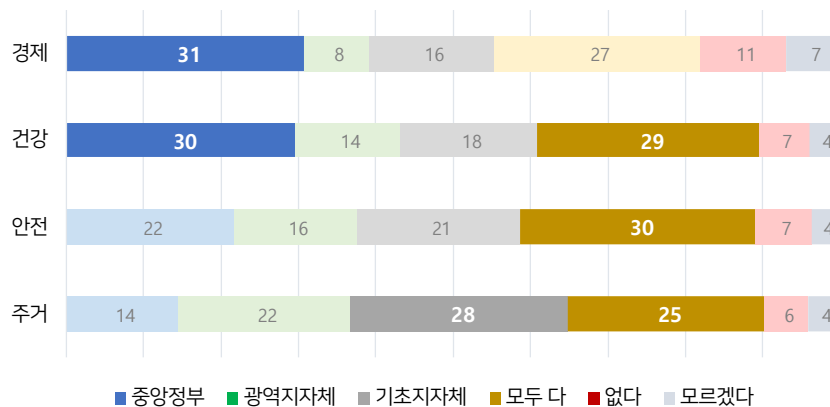
중양정부·지자체 불안요인 대응 방향성

□ '경제'와 '건강' 중양정부, '주거'는 기초지자체

-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4대 영역에 대해 공공 중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제'와 '건강'은 '중양정부', '주거'는 '기초지자체'라고 응답함
 - '안전'은 '모두 다'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구체적으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제시함

경제 : 일자리.출퇴근.복지지원 등	건강 : 의료시설.보건서비스.미세먼지 등
주거환경 : 교통.공원녹지.문화시설 등	안전 : 범죄예방.소방.교통안전 등
-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중양정부'가 31%로 높게 나타남
- '건강'은 '중양정부'(30%)와 함께 '모두 다'(29%)가 비슷하게 높음
- '안전'은 '모두 다'가 30%로 높아, 공공 모두의 역할이라고 응답함
- '주거'는 '기초지자체'가 높고(28%), 근소한 차이로 '모두 다'(25%)로 나타남

불안요인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 국민전체
(자료 : 케이스탯, 2023.11.05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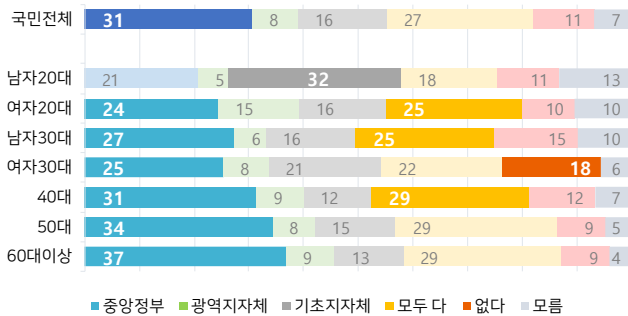
Kstat Point

- ☑ 광역·기초지자체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최우선 정책으로 '경제와 일자리'가 꼽힘
 - : 지자체 여론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최우선 정책'을 질문하고 경제, 일자리, 주거환경 개선, 도로망 확충 등에서 선택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
 - : 이러한 설문에 해당 지자체 주민은 자신이 가장 불안해하는 경제와 일자리를 꼽게 되고,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최우선 정책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놓게 됨
- ☑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및 판단은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국민들은 경제적 문제를 가장 불안해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인식하고 있음
 - : 즉, 경제와 건강은 중앙정부 해결과제이고,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안전과 주거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 향후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사회여론 조사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설문을 더욱 섬세하게 설계하고, 심층적인 분석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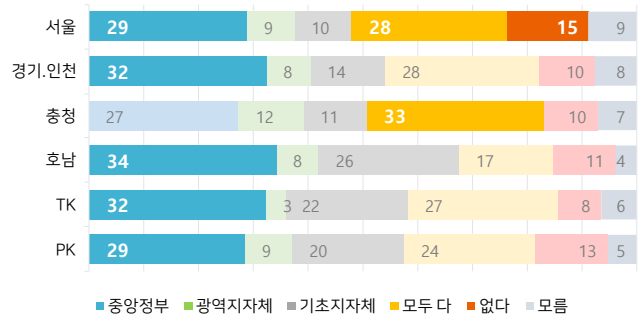
□ '경제', 거의 모든 계층에서 '중앙정부' 역할 꼽아

- 국민들은 '경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중앙정부'(31%)를 꼽고 있으며, 계층별로도 거의 비슷함
- 계층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중앙정부'가 가장 높고, 특히 높은 계층은 △60대이상 △호남 △자영업,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보수층, 진보층 등임
- '모두 다'가 가장 높은 계층은 △충청 △주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기초지자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계층은 △남자 20대임
- 한편, '없다'는 매우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서울 △블루칼라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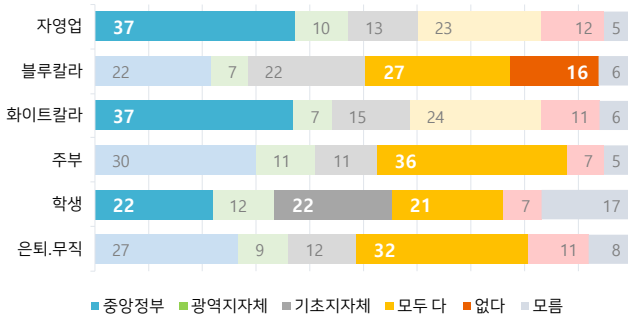
'경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 전체,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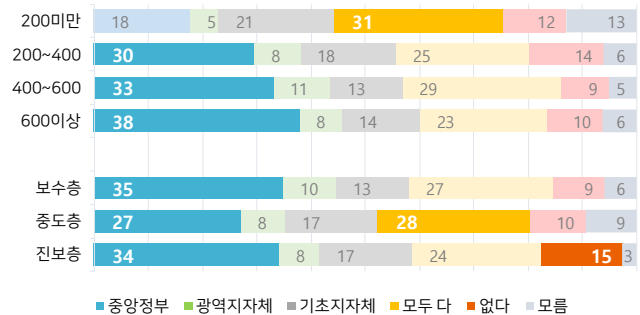
'경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 지역별 (단위:%)



'경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 직업별 (단위:%)



'경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 : 소득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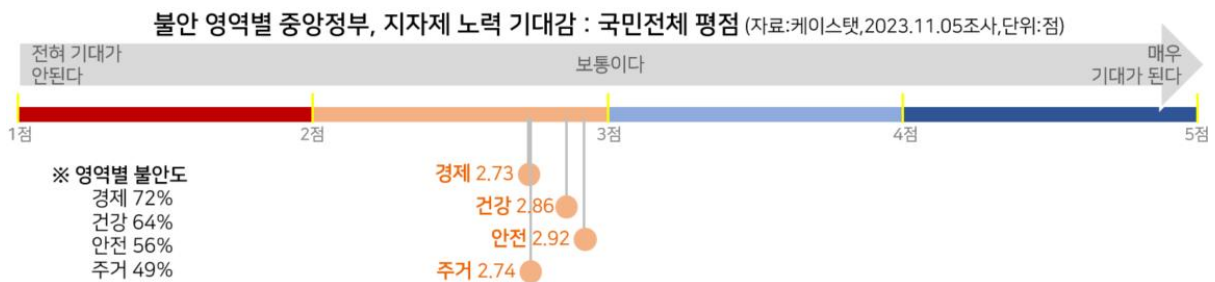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경제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경제를 계획하고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역할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작고, 지방자치가 덜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큼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역시 중앙정부와의 연계 속에서만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음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역·기초단체가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할 때 이러한 국민인식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임
 : '모두 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국민들이 '경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로 보임

□ '불안' 해결 기대감, 전반적으로 낮아

- 우리 국민들은 공공이 불안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음
- “선생님은 각각의 불안요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 때 앞으로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안되세요?”라는 질문에 ‘보통이다’(3점)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감을 드러냄
-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기대감이 2.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2.86점), ‘살고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2.74점), ‘소득과 일자리(또는 사업, 장사) 등 경제적 문제’(2.73점) 순으로 나타남
- 1점은 ‘전혀 기대가 안된다’이고,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이러한 결과를 삶 영역별 불안도와 비교해 살펴보면 불안도가 가장 큰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음



Kstat Point

- ☑ 국민들은 4가지 불안 영역에 대한 해결 주체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 기대감은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 이는 공공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함께 공공에 대해 ‘나와의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 이러한 결과 공공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내 개인의 삶은 ‘결국 내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음
: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도생’에 나서도록 강제하게 됨
- ☑ 향후 공공이 국민들의 현실적인 삶에 주목하고, 삶 속에서 느끼는 불안 요인들을 어떻게 해소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지 집중적인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때 국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긍정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통합의 길에 나설 것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8호, 8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8호와 89호는

각각 12월 8일(목요일), 22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12월 사회지표는 12월 15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